



교과서 미리보기 1

03 한국 문학의 흐름 1 - 고전

[01~0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 글은

조선 세종의 선조인 목조에서 태종에 이르는 여섯 대의 행적을 노래한 서사시로, 조선 건국의 정당성과 후대 임금에 대한 경계를 도모하고 있다.

주제 조선 건국의 정당성

어휘 풀이

● 해동 발해(渤海)의 동쪽이라는 뜻으로, 예전에 '우리나라'를 이르던 말.

● 천복 하늘이 내려 준 복.

● 동부 부신(符信)이 꼭 들어맞듯 사물이나 현상이 서로 꼭 들어맞음.

● 경천근민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위하여 부지런히 일함.

구절 풀이

★해동 육룡이 ~ 동부하시니 '해동 육룡'은 조선 6대 선조로, 이들이 하는 일이 중국 역대 성군들이 하는 일과 같다고 하여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해동(海東) 육룡(六龍)이 나시어 일마다 천복(天福)이시니 고성(古聖)이 동부(同符)하시니
<제1장>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리므로 꽃 좋고 열매 많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치므로 냇물을 이루어 바다에 가나니
<제2장>

적인(狄人)의 사이에 가시어 적인들이 침범하거늘 기산(岐山)으로 옮기심도 하늘의 뜻이시니
야인(野人)의 사이에 가시어 야인들이 침범하거늘 덕원(德源)으로 옮기심도 하늘의 뜻이시니
<제4장>

천세(千歲) 전에 미리 정하신 한강 북녘에 누인개국(累仁開國)하사 복년(卜年)이 가없으시니
성신(聖神)이 이으셔도 경천근민(敬天勤民)하셔야 더욱 굳건하시리이다
임금하 아소서 낙수(洛水)에 사냥 가서 조상만 믿겠습니까
<제125장>
- 정인지 외, 「용비어천가」

01

● 7781-0025 ●

윗글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대구의 표현을 사용하여 리듬감을 살려 내고 있다.
- ② 반어적인 표현을 통해 시적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③ 대립적인 색채어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선명하게 부각하고 있다.
- ④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시선을 이동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⑤ 명령적인 어조를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02

● 7781-0026 ●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용비어천가」는 총 125개의 장으로 구성된 작품으로 각 장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 ① <제1장>의 '고성이 동부'가 <제4장>의 전절과 후절을 통해 드러난다.
- ② <제2장>의 '바다에 가나니'는 <제125장>의 '복년이 가없으시니'를 의미한다.
- ③ <제4장>의 '덕원으로 옮기심'은 <제1장>의 '일마다 천복이시니'의 사례에 해당한다.
- ④ <제4장>의 '야인들이 침범'은 <제2장>의 '바람에 아니 흔들리므로'의 원인이 된다.
- ⑤ <제125장>의 '누인개국'의 주체는 <제1장>의 '육룡'에 해당한다.

03

● 7781-0027 ●

<보기>를 바탕으로 <제1장>과 <제2장>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용비어천가」는 조선이 단순히 이성계의 군사 정변에 의해 탄생한 것이 아니라, 세종의 6대 선조 때부터 하늘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며 건국의 정당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조선은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어떤 위협도 이겨 내고 문화가 번성할 수 있다고 축원하고 있다.

- ① '육룡'은 세종의 6대 선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
- ② '천복'은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어.
- ③ '열매'는 조선의 문화가 번성하기를 기원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 ④ '뿌리 깊은 나무'는 조선의 기초가 튼튼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
- ⑤ '가뭄'은 조선이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책이라고 볼 수 있어.

04

● 7781-0028 ●

윗글의 <제4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전절은 중국 왕의 사적을 다루고 있다.
- ② 전절과 후절의 인물들은 모두 적들의 침범을 당하였다.
- ③ 전절과 후절을 통해 조선의 건국이 마땅했음을 주장하고 있다.
- ④ 전절과 후절은 동일한 서술 형태를 취해 공통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전절과 후절의 차이를 부각하여 특정 인물의 행위를 영웅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05

● 7781-0029 ●

<보기>를 참고하여 <제125장>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용비어천가」 <제125장>은 조선 6대 선조의 행적을 들어 조선이 오랫동안의 준비를 거쳐 건국되었다는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나라를 더욱 굳게 만들 지침을 전달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라 태강왕이 폐위당한 사실을 바탕으로 조선 후대 왕에 대한 권계를 다루고 있다.

- ① '누인개국'은 조선 건국이 오랫동안 준비되었음을 주장한 것이라 할 수 있겠군.
- ② '성신'은 조선을 건국한 위대한 선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군.
- ③ '경천근민'은 조선을 더욱 굳게 만들기 위해 후대 왕이 해야 할 지침이라 할 수 있겠군.
- ④ '임금'은 조선의 왕권을 이어받을 후대 왕이라 할 수 있겠군.
- ⑤ '사냥'은 후대 왕이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권계한 것이라 할 수 있겠군.

06

● 7781-0030 ●

윗글의 창작 동기와 관련하여 윗글의 장르가 시조와 다르게 향유층이 제한적인 이유를 서술하시오.

권계 잘못함이 없도록 타
러 주의시킴.